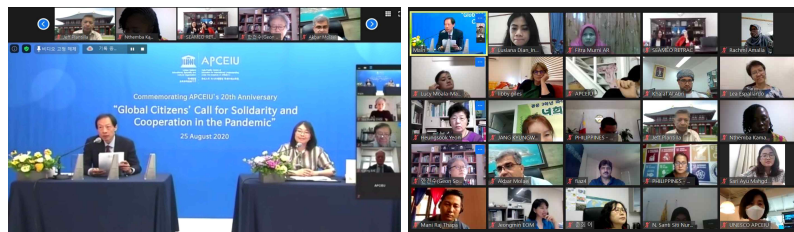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소식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창립 20주년 기념 “팬데믹 시대 인종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연대와 협력 글로벌 캠페인” 개최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2020년 8월 25일 오후 3시부터 100분간 “팬데믹 시대 인종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연대와 협력 글로벌 캠페인”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COVID-19 상황에서 화상회의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전 세계 각국의 교육자, 연구자, 시민사회 실천가, 청년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연대와 협력의 가치, 그리고 실천 역량을 키워주는 세계시민교육을 더 많은 나라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의 전체영상은 아태교육원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apceiu) 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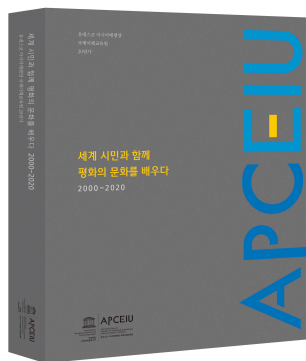


- 『멀티플 팬데믹: 세계 시민, 코로나와 부정의를 넘어 연대로 가는 길을 묻다』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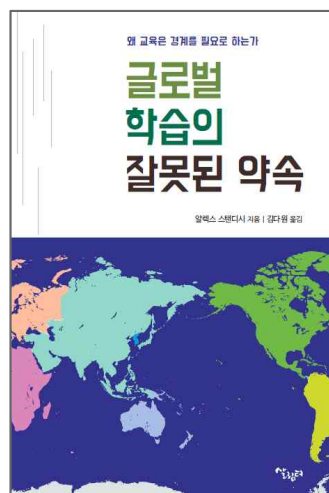
아태교육원은 2020년 7월 31일, 『멀티플 팬데믹: 세계 시민, 코로나와 부정의를 넘어 연대로 가는 길을 묻다』를 발간했다. 현 팬데믹 상황에서 대두되는 주요 이슈들을 보다 전문적인 내용과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현 상황을 보다 다면적으로 깊이있게 성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아태교육원 20년사 『세계 시민과 함께 평화의 문화를 배우다 (2000-2020)』 발간



아태교육원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며 그간의 역사와 활동을 담은 아태교육원 20년사 『세계 시민과 함께 평화의 문화를 배우다(2000-2020)』를 8월25일 발간했다. 이 책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해 온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20년 활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성찰,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담고 있다.

■ 『왜 교육은 경계를 필요로 하는가-글로벌 학습의 잘못된 약속』



본 학회 회원인 광주교육대학교 김다원 교수는 영국 런던대학교 IOE의 알렉스 스탠디시(Alex Standish) 교수의 『Why Education needs Boundaries? The False Promise of Global Learning』을 번역하여 9월 초 출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세계화 교육, 다문화교육, 국제교육, 국제이해교육, 개발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이 순차적으로 학교교육에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교육에 대해 성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도서는 유치원, 초등·중등 교사, 교육가, 기타 모든 교육 관계자를 독자로 한다.

회비 및 기부금

- 학회는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비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경우 회원자격을 유지하실 수 없습니다. 약정한 회비는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 회비 및 기부금 계좌 안내 : 연회비 3만원
우리은행 1005-503-697618 (예금주: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 편집위원회 심사 및 게재비 계좌 안내
농협 302-1077-0586-11(예금주: 임미연)

공지 사항

- 우리 학회의 학회지 <국제이해교육연구>발행이 2020년부터 연 3회(4월30일, 8월 30일, 12월 31일)로 증간됩니다. 그리고 온라인논문 투고심사시스템(http://www.koseiu.or.kr/online_paper2/index.php?hCode=LIST)을 통하여 논문투고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논문 투고 부탁드립니다.
- 우리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을 2018년 6월 발간인 13-1호 논문부터 온라인 원문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해교육학회 원문

서비스(<http://journal.koseiu.or.kr/>) 에서 편리하게 게재 논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고 인용도 부탁드립니다.

■ 2020년 12월 31일에 발간될 15-3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까지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논문투고심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투고해 주십시오.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이 메일 연락처(koseiu@naver.com)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학회 회원님들의 소식도 기다립니다. 모든 소식 환영합니다.